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자문

임춘택

자문봉사(복취, 교정)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11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7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이나가키 히사카츠

동경기독교대학 기독교복
지학과 학과장이며 공공철
학을 통해 사회문제의 성
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2011.11

PREFACE

04 기독교 학문을 하도록 하는 도전 이승구

COVER STORY

10 성경의 원리로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
이나가키 히사카츠(稲垣久和) 최태연

14 일본기독교계의 진단과 바람 성현창

GROBAL

17 국제기독교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김승욱

19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오동일

COLUMN

22 한국 공교육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정병오

27 생명윤리 특강2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이상원

CULTURE

31 아프리카의 마녀사냥(1) 장유진

34 영화 '비창'을 되새기다 진원미

38 SCFF영화제 수상소감 공주빈

40 갤러리; 세계관을 담는 그릇 오의석

43 김명엽의 찬송교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김명엽

BOOK REVIEW

44 생각하라는 도전을 높이 사면서 이승구

NEWS

49 활동보고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
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3)

기독교 학문을 하도록 하는 도전

지난 호에서는 모든 기독교 활동의 토대를 분명히 한 것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한 부분으로 학문에 대한 카이퍼의 도전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독교적인 학문 연구에 관심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고찰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카이퍼는 과연 학문하는 일에 대해 어떤 도전을 주게 될 것인가?

이승구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 학문

카이퍼의 기본 생각은 학문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카이퍼 당시에도 학문이 세속화되었음을 그는 매우 강조한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학문이 중립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가진 전제와 선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학문이 시도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중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과, 삶에 대한 의식(意識), 학문 역시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낱는다. ¹⁾“(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삶과 두 종류의 삶에 대한 의식(意識)이, 그리고 두 종류의 학문이 있다는 사실을 낱는다.”²⁾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안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정상적(正常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정상

성(正常性)을 중심으로 학문을 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자연주의 입장에서 학문을 하게 되므로 이는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에 비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안에 상대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곳으로서 비정상적(非正常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한다. 그리고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학문을 한다. 카이퍼는 이런 학문을 기독교(Christian) 학문이라 표현하는데, 자연주의 학문과는 대립적(antithetical)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학문에 이런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카이퍼가 강조하는 바들이 오늘날 잊혀지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신학에 대해서도 두 입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들에게 신학은 받아들인 계시를 잘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학문이 된다. 이에 비해 거듭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시에 대

1) 이는 특히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Charles Scribner's Son, 1898; reprint, Grand Rapids: Baker, 1980), 150-76의 강조점이다. 여기서 카이퍼는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종류의 학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2)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154.

3)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181.

신학에 있어서도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 설명하고 제시하려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관점에서 신학을 할 때는 계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적용시켜 왜곡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분명히 다른 두 가지 학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적용시키려 한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계시를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학문 분야에서도 분명 다른 입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다.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독교 학문

그렇다면 중생자의 탐구로서의 기독교 학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그것을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문을 해야만 한다. 다른 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학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진정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 목적과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 학문 주제(subject-matter)와 진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主權)이 온전히 인정될 때 그런 학문적 작업을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제된 학문은 기독교 학문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일부만 인정하는 것도 온전한 기독교 학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주권은 다른 것 안에 있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학문과 그런 태도의 학문적 활동만이 기독교 학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이 세상에 우연히(by chance)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과 잘 연관될 수 있는 학문은 기독교 학문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전제를 지닌 생각이 스며들어 와도 온전한 기독교 학문은 아닌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므로 인간은 그 어떤 일에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일종의 숙명론적인 사상도 기독교 학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학문 활동이다. 이것은 내용 진술과 학문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존중하며 성경의 내용과 특히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모순없이 일치하는)을 가질 수 있는 학문만이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의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올 수는 없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학문이 진정한 것이라면 적어도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바르게 해석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옳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서 기독교 학문은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을 유지하니, 사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을 하는 분들은 그 어떤 학문 분과를 연구하든지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탐구하고 그것을 더 분명히 외현화하며, 그것이 더 성경적이 되게 하고, 자신의 학문이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기독교 학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 학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주로 학문을 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그 언제나 성령님께 의존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은 항상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학문 활동이어야 한다. 성령님을 배제한 활동은 기독교 학문적인 것이 아니다. 철저히 성령님에게만 의존하면서 학문을 해야만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다. 이것은 학문을 하는 태도와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 활동은 자신의 활동이나 그 결과물을 높이거나 그것 자체에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견해들도 존중하되 단지 본인 자신의 활동이 과연 기독교 학문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듯이 다른 결과물에 대해서도 같은 검토를 할 뿐이다. 그런 뜻에서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독교 학문은 이제 까지 말한 모든 특성들을 잘 나타내면서 진정 사람들을 위하는 이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만일에 학문의 과정과 그 결과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 기독교적 학

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 학문은 진짜 인간존중사상을 실천하게 하는 통로여야 한다. 이는 기독교 학문의 목적인 동시에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든 휴머니즘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땅위의 사람이나 혹은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며 문화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성경적인 문화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속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성경적인 문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중립적인 의미의 세계로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죄로 물든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비성경적인 공리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쪽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현실적으로 기독교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 제시된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카이퍼처럼 학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criteria) 제시는 모두가 기독교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학문에 소명을 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학문 활동에서 반드시 이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물론 때때로 학문하는 과정에서 이와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항상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학문의 패러다임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이다. 현대는 신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이 여러 학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에 접근하려 하면 종교활동으로만 치부하고 학문하는 게 아니라며 비웃는다.

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학문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독교 학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이다. 우리가 온전히 기독교적 학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진정 통회(痛悔)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문 활동으로 다가가려고 다시 다짐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존해서 그런 학문적 노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전제와 방법론을 비롯한 학문의 패러다임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는 카이퍼 시대보다 오늘날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카이퍼의 시대에는 진화론과 유물론, 무신론, 인간의 힘으로 혁명하여 진보를 이루려는 진보주의와 혁명주의 등이 모든 학문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현대에는 이런 모던주의(modernism)의 강조점과 함께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여성주의(feminism),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post-modernism)이 여러 학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해 준다.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에 접근하려 하면 종교활동으로만 치부하고 학문하는 게 아니라며 비웃는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조소와 비판에 대해 용감하게 마주 서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한 부분이다. 이를 피해 갈 때 우리들에게는 기독교 학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저 싸움을 하면서

학문을 하진 않아도 된다. 어떤 학문을 할 때에라도 진정 기독교 학문을 하는 이들은 그 어떤 이론에 사로잡혀 학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점이기도 하다. 대개 이 세상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기 쉽다. 그래야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제시한 다양한 이론들을 대조시키면서 그 모든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대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한 실질적인 학문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학문적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 세상의 보다 많은 현상을 더 잘 설명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독교 학문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오래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말해 주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 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전도서 1:18)”. 또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전도서 12:12)”.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학문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전도서의 이 말씀들은 학문 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학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여러 시금석에 포함되는 학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자신에게도 진정 의미 있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모든 활동은 결코 헛되지 않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학문 활동은 그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아주 부족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학문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기를 카이퍼가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다.

마치면서 하는 도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反)-지성주의자들이나 반(反)-학문주의자들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학문 활동이 그저 인간적인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主)로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처음에 말할 바

와 같이 카이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삶의 활동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즉,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학문하는 이들이라면 그 학문하는 바가 모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학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의 글들도 이 지면에 실려지기를 원하며 글을 맺는다.)



이승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강해1, 2』, 『21세기 개혁신학』, 『광장의 신학』,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이 있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A Praying Life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놀라운 책!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덧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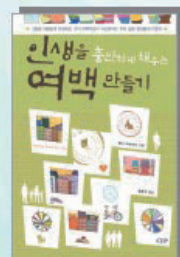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꼭 막힌 기계적인 기도에 지쳤다면,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닌가 싶었다면,
혹시라도 기도를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면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러지 말라!

스티브 브라운 (리폼드 신학대학원 교수)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C U P



COVER STORY



성경의 원리로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

이나가키 히사카츠(稲垣久和)

☞ 인터뷰 최태연(백석대 교수)

교수님의 신앙적 배경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개혁신교회(the Reformed Church in Japan)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베 개혁신학교(改革神學校)가 속한 교단이지요. 지금 이 교단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고 교회는 동경에 있는 온초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후, 네덜란드에 유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사이타마 대학과 동경메트로폴리탄 대학을 졸업한 후,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암스테르담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지요. 이 대학에서 저의 신학과 철학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되려는 소명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하하! 제가 속한 개혁신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은 적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점에서 전 철저한 카이퍼주의자(Kuyperian)지요. (웃음)

교수님은 동경기독교대학(Tokyo Christian University: TCU)에 계시지요? 지금 하시는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대학에서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을 가르치고 있어요. 2008년에 신설된 기독교복지학과의 학과장이고, 대학부설 공립기독교연구소(共立基督教研究所, Kyoritsu Christian Institute)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복지학과는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고 공립연구소에서는 일본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발전시키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교수님이 전념하고 계신 공공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10년 전부터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공공철학(公共哲學)은, 정부의 공적(公的)영역과 개인의 사적(私的)영역 사이에 ‘공공(公共)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 원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원리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동경대출판부에서 20여권의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 중 열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한 권 소개되었죠. 아마와키 나오시 교수의 책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예요. (성현창 교수 번역) 저는 기독교철학자가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성경의 원리로부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어요.

교수님의 철학은 정의(正義)의 실천에 강조를 두고 계시군요?

저는 철학에서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와 공공철학』(2004)과 『국가·개인·종교』(2007)라는 공공철학 이론서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 해방론』(2006)이라는 실천적인 책을 썼습니다. 일본정계 극우파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가 주장하는 국가신화적 의미와 공공성의 상실을 비판하고, 2차대전 참전 전사자를 위한 공공묘지를 제안한 바 있지요. 이 책은 일본에서 한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공공철학을 복



지에 적용한 『공공복지라는 실험』 (2011)을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일본에서도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개념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에 도예베르트(Dooyeweerd) 철학의 실재세계의 존재론을 도입했습니다. 자연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지 개념을 주장하는 거죠. 복지는 왜 타자를 돌봐야 하는가의 물음에서 출발해서 전인적인 사회복지(social work)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복지’개념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죠?

내가 타자를 돕고 돌보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마 28:19)이고, 또 하나는 “이와같이 하라(눅 10:37)” 실천명령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일본의 선교를 보더라도 복지라는 면이 결합되었을 때, 성공적이었죠. 1549년에 로마가톨릭 교회가 일본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시작했어요. 1859년 미국 장로교가 처음으로 선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에서 초창기 복지사업자는 모두 기독교인이었어요. 선교와 복지는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복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은?

동경시와 협력해서 ‘바빙크 복지연구센터(Bavinck welfare study center)’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쟁 후 일본은 국가 주도로 복지가 이뤄져, 공공 영역의 복지는 위축되었죠. 일본 헌법이 정부를 복지주체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 2000년에 개정되어 지금은 달라졌어요. 공공 영역의 복지를 인정하게 됐지요. 복지에 대한 교회 참여의 여지도 많이 생겨나서,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노인과 약자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교회의 미래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들려 주시지요.

일본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웃음) 지금 일본 개신교는 대표적인 두 교파인 일본기독교단과 복음주의교단이 협력하고 있어요. 저도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까지 포함하는 (일본기독교교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지요. 일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돌봄의 사역이 일본인의 신뢰를 얻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기독교학교는 사회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일본교회 미래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경기독교대학(Tokyo Christi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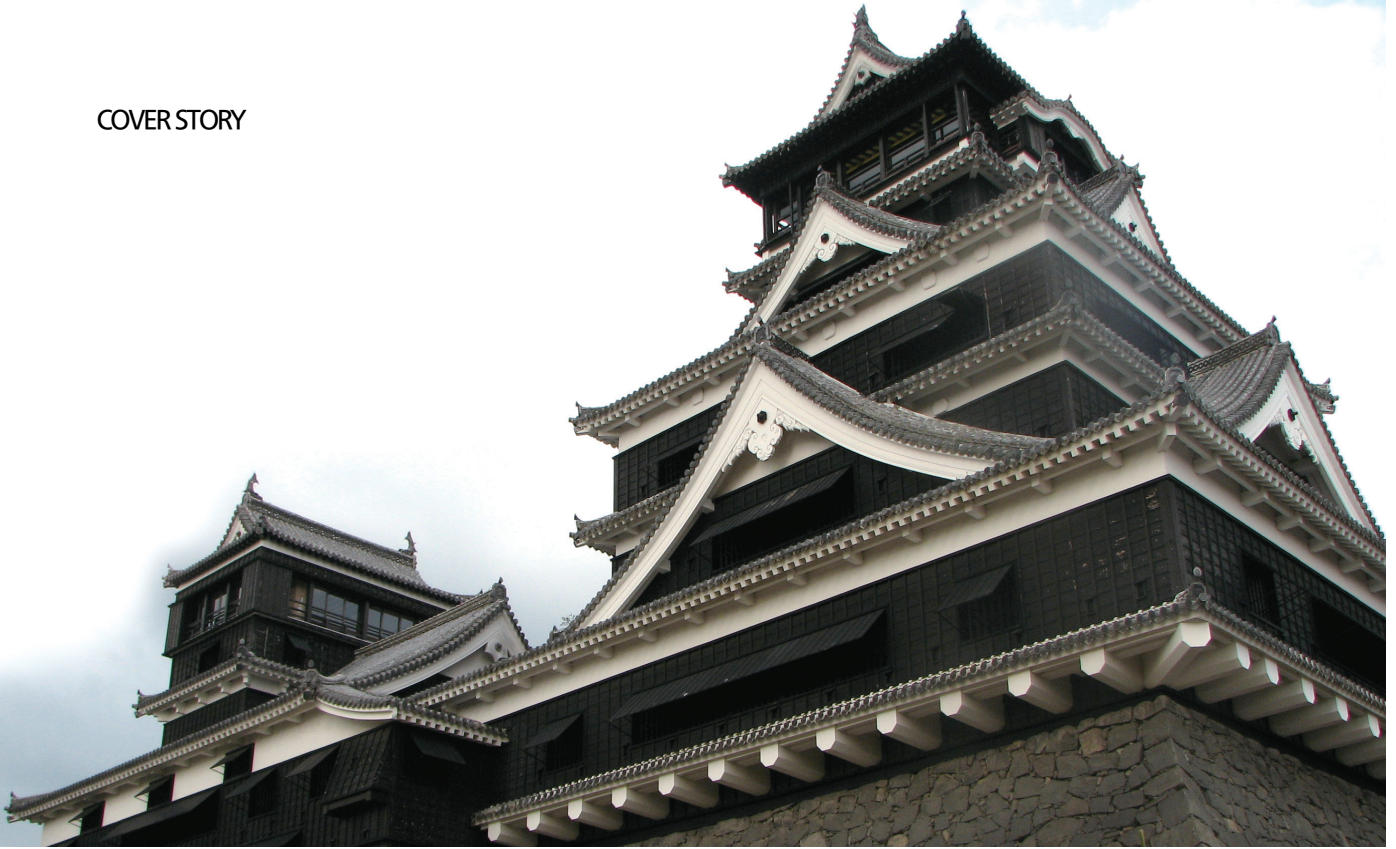
일본 유일의 4년제 복음주의 기독교대학인 동경기독교대학(TCU)은 오랜 역사를 세 학교, 공립여자성서학원과 일본기독교신학교, 동경기독교단기대학이 1979년 하나로 통합하여 탄생했다. 이 대학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인문학을 교육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학교 캠퍼스는 동경 도심으로부터 전철로 40분 정도 동쪽의 아름다운 전원도시인 지바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에서 동쪽으로 조금가면 나리타 신동경 국제공항과 태평양의 긴 해변이 나온다. 남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동경 디즈니랜드와 인공지능이 눈에 들어온다. 캠퍼스 면적은 24,000평으로 옛날 중세 수도원의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학생은 오피스텔 수준의 기숙사 생활을 한다. 대학의 상징은 세 개 원형 돔으로 지붕을 이은 채플과 종탑인데, 매일 정오가 되면 청동으로 만든 종이 울린다. 이 채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 교실과 연구실, 대학본부 사무실, 5만 권의 기독교 장서가 있는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과 동아리실이 있고, 그 뒤편에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다. 동화 속 수도원 같은 캠퍼스에서는 항상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동경기독교대학의 네 가지 모토는 복음주의(福音主義), 초교파(超教派), 세계선교(世界宣教), 실천적 신학교육(實踐的神學校育)이다. 이 대학은 신학적으로 온건한 개혁주의의 토대 위에 모든 복음주의를 포용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하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와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로는 신학과, 국제기독교학과, 기독교복지학과가 있으며 졸업을 위해 132학점이 요구되고 졸업논문을 써야 한다. 대학교수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학연수, 선교지 방문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며, 미국의 바이올리(Biola)대학과 학생 교환을 한다. 대학부설 연구소는 동아시아연구소, 공립기독교연구소가 있다. 신학과 목회학 박사 학위는 일본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연합한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ATA)를 통해 수여된다. 총장인 마사노리 구라사와 교수는 일본의 저명한 선교학자이다.



동경기독교신학대학원(Tokyo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동경기독교신학대학원은 동경기독교대학 내의 신학대학원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설교자와 복음주의신학에 기초해서 종교, 사상, 문화에 대한 복음을 입증하는 변증가, 인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정열적으로 선교를 담당할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이 신대원의 목적이 있다. 목회전공과 선교전공이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해외선교사 수는 모두 40명이 넘는다. 신학생들은 졸업 후 3년 정도 전도사로 봉사한 뒤, 목사시험을 치루고 교단을 통해 각 교단별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일본 기독교계의 진단과 바람

이 글은 이나가키 히사카츠(稲垣久和)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본 기독교계와 기독교학문 현황입니다.

📍 글 이나가키 히사카츠, 번역 성현창

일본의 기독교관련 학회

일본기독교학회는 가톨릭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학술단체다. 이 학회는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1952년에 설립된 공신력 있는 모임으로, 『日本の神學(일본의 신학)』이라는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1930년에 창립된 일본종교학회는 일부 기독교인도 참가하고 있지만 불교와 신흥종교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학회지로는 『宗教研究』가 있다.

그리고 비교사상학회는 인도학과 불교학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일본의 비교사상의 개척자이기도 한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912~1999)를 중심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동서양철학의 비교연구를 주로 다루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比較思想研究』를 간행하여 연구 성과를 내외적으로 공개한다. 이외에 기독교와 교육관계를 연구하는 기독교교육학회와 기독교와 복지관련 학회인 기독교사회복지학회가 있다.

다음으로 이나가키 히사카츠 교수가 일본의 기독교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일본의 기독교계를 진단하는 키워드는 ‘초월적 권위’와 ‘종교로서의 공공성’이다. 그는 ‘초월적 권위’라는 바로미터를 가마쿠라(鎌倉)시대(1185~1333)부터 시작된 민중불교에서 찾았다. 가마쿠라불교의 중심부에 있었던 신란(親鸞, 1173~1262)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죄성 깊은 존재다. 믿음을 포함하여 정도왕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이미 실현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저한 ‘절대 타성’의 신앙이었다. 이나가키 교수는 정토진종(淨土眞宗)교단 렌노(蓮如, 1415~1499)의 저항권 발언을 부처의 ‘초월적 권위’ 아래 강권적인 지배와의 대립으로 해석했다. 렌노는 “불법(佛法)을 위해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전(合戰)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570년부터 11년간 이어진 이시야마(石山)성의 혼간지(本願寺)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사이의 결전도 권위를 둘러싼 전투적 종교, 곧 정치적인 불자들의 봉기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니치렌(日蓮)계 불수불시파(不受不施派) 시조인 니치오우(日奥, 1565~1630)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양심적 저항을 일본 근대사에서 기독교와 함께 순교의 피를 흘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대 시기의 일본은 부처라는 절대자가 갖는 ‘초월적 권위’ 및 여기서 발생하는 세속적 권력자의 권위가 부정되었으며, 모든 중생에게 상대화된 평등의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또한 1587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선교사 추방, 1597년 나가사키(長崎)에서 있었던 26명의 기독교인 책형(磔刑) (십자가형) 이후 심해진 기독교 박해를 ‘초월적 권위’의 소재 문제에서 찾고 있다..

메이지(明治)시대(1868~1911)가 되면 에도(江戸)시대(1603~1867)에 탄압을 받아온 기독교가 부활한다. 메이지정부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하급무사는 ‘

새로운 주군’과 ‘새로운 권위’를 기독교의 하나님에서 발견하였다. 다만 일본 프로테스탄트는 ‘무사의 에토스와 청교도주의의 결혼’이라 불리듯, 중산계급의 다소 지적인 집단으로 출발했다. 한편 ‘평민의 복음’으로 유명한 구세군의 아마무로 군베이(山室軍平, 1872~1940)와 빈민가 전도를 한 카가와 도요히코(賀川彦, 1888~1960)의 ‘구속적 사랑의 사회 실천적 기독교’ 등도 배출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천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충돌이 있었다. 소수 기독교인은 천황의 권위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장하며 순교를 마다않고 신앙적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교회는 타협했다. 이를 반성하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는 국가신도(神道)의 재래와 같은 풍조는 일관되게 견제해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며, 세계의 창조자이고 주권자로 자연세계와 세계 역사를 통제한다. 이 ‘초월적 권위’를 믿는 한,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만 의미를 알게 된다. 학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반 학문을 연구하여 기독교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비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기독교는 ‘초월적 권위’ 문제를 충분히 고찰하지 않았다. 때문에 창조자이고 주권자이며 구속자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과 역사,

문화와 세계의 존재 의미가 밝혀짐을 신학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넓은 의미의 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나가키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공공적인 의식이 약하다는 사실이었다.

서양사상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내의 데아코니아(집사직, 봉사직)를 교회 밖으로 확대해야 하고, 일본에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신학의 창조'를 제시하면서 이웃 사랑의 실천, 즉 복지문제에 적용하려고 한다. 교회를 형성하거나 기독교 공동체론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다시 말해 그의 관심은 자연신학이란 무엇이며, 현대 자유주의 사상과(이데올로기와) 시민사회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면서 이것들을 접목하는 데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본 기독교 교회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actor의 하나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나가키 교수는 일본 기독교가 민중에게 구제관을 일깨워 준 가마쿠라불교의 영성을 능가할 내용이 없다면 일본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다. 공공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의 공공적 책임성을 현실에서 모색하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이나가키 교수가 주장하는 '자연신학의 창조'와 공공신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다.



성현창 일본 와세다 대학 동양철학전공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와세다 대학 근세유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 대학 대학원 문학학술원 외국인특별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백석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로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아시아교정표럼학회 등의 편집위원과 윤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등이 있고, 대표논문으로는 '기독교세계관과 주자학의 비교를 통해서 본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교양교육으로서의 동양철학' 등이 있다.



국제기독교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 김승욱

세계관동역회는 지난 9월 28일에 중국 절강성 항주에 위치한 절강대학교 산하 기독교 및 타문화연구소와 국제기독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hristian Studies) 설립을 위한 합작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서 손봉호 이사장, 조성표 세계관연구소장(경북대 교수), 정희영 학회장(충신대 교수), 김승태 대외협력위원장(예영출판사 대표), 정수균 중장기위원장(선교사), 김승욱 실행위원장(중앙대 교수) 등 6명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항주를 방문했다.

중국측 대표는 청화대학교와 절강대학교 공동교수인 왕효초 교수였다. 그는 절강대학교 기독교 및 타문화연구소 주임교수이기도 하다.

합작의향서에는 “한-중 학술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독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세계 학계와 궤를 같이하며, 기독교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력 쌍방이 모두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술 연구기구로 발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절강대학교의 위 연구기지 내에 ‘국제기독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hristian Studies)’를 설립하여, 학술연구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학술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임 혹은 겸임 연구원을 두고, 일상 업무는 한 중 쌍방이 추천한 직원이 처리하기로 했다. 조직은 자문위원, 이사회, 소장, 학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 이사회는 재무를 책임지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기로 했다.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서 학술회의 및 교류를 추진하며, 학술지를 발행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사업 내용을 정했다. 이번에는 큰 틀의 합의만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전개할 예정이다.

합작의향서 교환 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한국 사회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그 곳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본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이 주제로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논문들과 김지철 목사의 강의 자료 등을 합해 책을 내고,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망교회 박래창 장로(현 CBMC 중앙회 회장)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절강대학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지강대학의 후신이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기독교중심지로 정한 곳이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게다가 절강대학교가 올해 중국의 대학평가에서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을 누르고 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이번 한중학술교류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워질 국제기독교연구센터가 기독교 학문 보급과 학술 교류에 기여하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경제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및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술로는 『알짜 시장경제』, 『시장인가, 정부인가』,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등이 있다.



절강대학교 쑤진캠퍼스 도서관 전경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 오동일

기독교적 배경

절강대학은 “북경에 칭화대학이 있다면 남방에는 절강대학이 있다” 고 말할 정도로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이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일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절강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장서(605만권)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중의 하나로, 1897년에 설립된 ‘육영서원’과 ‘구시서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 ‘육영서원’은 1845년 미국 북장로교 맥가티(D.B. McCartee)목사가 Ningbo에 설립한 승신 의서(the Ningpo Boy's Academy)로부터 시작되었다. 1867년에 항주로 옮기면서 육영 의서(Hangchow Presbyterian Boy's School)로 개명, 1897년부터 대학과정을 개설하면서 육영서원(Hangchow Presbyterian College)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1909년에는 미국 남장로교가 개입되면서 미국 남북장로교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1914년에는 지강대학(之江大學, Hangchow Christian College)으로 개명하였다.



1914년 지강대학 전경

그러나 1951년 지강대학이 절강성 정부 문교부 관할에 들어가면서 미국 교직원들은 모두 추방되어 중국을 떠나야 했다. 1952년에는 중국정부가 전국대학들 학과조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면서, 지강대학의 문리대와 공과대 대부분을 항주대학에 합병시켰다. 그리고 1998년에 항주대학이 다시 절강대학에 합병되면서, 기독교대학인 지강대학이 오늘의 절강대학 전신을 이루게 되었다.

이어지는 기독교 명맥

오늘날 절강대학은 기독교적 명맥을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다. 역사적 이유로 오랫동안 기독교 연구가 중단되었으나, 20세기 들어와서 80년대 개혁개방 이후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3월에 절강대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연구센터’를 출범시켜 해외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좌들을 개설하였고, 해외 단체들의 도움으로 <종교와 문화>(북경, 동방출판사, 5기를 출판했음)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11월에 ‘기독교연구센터’가 중국 교육부산하 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로 지정되면서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ICCS)’로 출발하게 되었다. ICCS는 절강대 인문, 국제문화, 교육, 외국어, 법학대학 등에서 기독교문화 관련연구에 종사하던 학자들로 구성되어 학제간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34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교수 21명, 부교수 7명, 전임강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과 3명의 박사후 연구원을 두고 있다.

ICCS는 현재 다섯개의 연구방향을 정하여 진행중에 있다. 1)헬라문화와 초기 기독교 관계 연구; 2)종교철학과 종교간 대화; 3)기독교의 전파과정 연구; 4)전환기에 있는 중국기독교 연구; 5)문화와 종교간 충돌문제 연구 등이 있다. 지난 수년간 거둔 가장 큰 학술 성과로는 천춘푸 교수가 『전환기 중국기독교 연구』 완간하였고, 왕소초 교수가 『플라톤 전집』을 헬라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출판하였으며, 천춘푸와 왕쯔칭 교수가 『헬라철학사』(전4권)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 즈진강캠퍼스 교학동 2. 시시캠퍼스 EMBA과정 3. 기숙사

교류와 협력

학술과 학과는 국제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국경이 없다. ICCS는 국내외 학술교류와 협력을 자신의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ICCS는 국내외 많은 단체 혹은 대학들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루어왔다. 주요한 형식으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서로 파견하는 것이었다. ICCS는 콜롬비아대학, 미국CAC, 미국천주교연구회, 예일대학, 프린스톤대학, Santa Borban대학, 이태리철학연구소, 토론토대학, 암브로시오서관, 영국리즈대학, 이스라엘 베들레헴대학,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 등 우수한 해외단체들과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고대 슈메르(Sumer), 아카드(Akkad), 바벨론(Babylon), 이스라엘과 환지중해권의 고전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을 초청하여 교학과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ICCS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중앙민족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청화대학, 무한대학, 중산대학, 사천대학, 산둥대학, 복건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영남대학 등 10여개 종교 혹은 기독교연구단체들과도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오동일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칭화대학교 철학 박사후 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공교육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 정병오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홈스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러한 운동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하셨다는 말씀에 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부모들이 담대히 공교육을 포기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공교육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나 신학에서 많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다. 공교육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기독교인이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에 보내는 게 신앙적 결단임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는 건 불신

양적인 태도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공교육의 기원과 전개

널리 알려진 바대로 유럽에서 공교육은 루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 성직자 후보생을 중심으로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교육을 비판한다.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육은 성직자 후보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성벽을 쌓기보다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실제로 이러한 루

서구의 공교육은 하나님이 모든 아동 가운데 심어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 학교의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라는 관점에서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터의 주장대로 독일에서 근대 공교육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루터파 교회가 국교로 자리잡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공교육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루터가 주장했던 공교육은 오늘날 개념의 공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모든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을 주장했다는 면에서 오늘날 공교육의 기초를 쌓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는 교과로서의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루터는 공교육과 기독교학교가 결합된 형태의 학교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었을 것이다.

루터의 이러한 사상은 근대 유럽 공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교육은 여러 영향에 의해 루터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즉,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학교를 통해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만들기를 원했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유럽이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 공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점점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학교 교육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가르치며, 사물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공교육은 그 목표와 아동관, 학교 운영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가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기독교적 전통과 루터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서구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아동 가운데 심어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

고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라는 관점에서 교육체제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제1주체로서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치가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공교육은 어디에서 있는가?

서구 근대 교육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세속화된 교육과정은 과학이나 신학문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교육 가치와 철학, 아동관은 출세를 지향하는 현세적인 유교 가치로 바뀌어졌다. 전통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상류층을 형성할 기회가 열리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까지 생겼다. 교육이 은사와 재능 발견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입신양명의 수단이 되고 만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운영과 체제는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을 바라보고 섬기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교육의 제1주체라는 교육적 원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현재 한국 교육은 모순을 덧입은 기형을 취하고 있다. 서구 사회처럼 교육에서 가치가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종교라는 이유로 배척해 버린다.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료 체제에 지배당하는 경직성, 교육을 단지 출세 도구쯤으로만 여기는 입시위주의 교육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구 교육은 매 학년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대부분의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반면 우리 교육은 그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려고만 한다. 부모와 교



엄밀하게 생각하면, 종교중립이나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의 기독교 배제는 물질주의와 무신론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반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사, 학생 모두의 관심사는 ‘몇 등’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공부가 노동이 되었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휘청 거린다.

기독교인은 공교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교육은 크게 세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국가와 사회의 공교육이 바로 서는 일이다. 공교육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은사와 재능에 따라 자신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가 일차적인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루터도 말했듯,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으므로 국가가 이 책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이

나 국가적 지원이 약화되면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받기가 어려워진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이웃사랑 차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공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교육이 가진 가치중립 혹은 반기독교성의 문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공교육은 내용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서구 사회의 탈가치 현상과 함께 기독교가 학교의 교육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종교중립이나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공교육에서의 기독교 배제는 결국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물질주의와 무신론의 확산으로 이어질

각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일이다.

수 있다. 그렇다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공교육 가운데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반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정예배와 대화가 중요해진다. 부모로부터 진리와 믿음에 대해 들을 기회조차 없다면 아이들은 세속화된 교육에 물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아가 크리스천 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독교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죽은 교육 속에 생명을 불어 넣도록 말이다. 가능하다면 기독교자와 연합하여 공식 교육 과정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을 시도해 봄도 좋겠다.

끝으로 한국 공교육이 가진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의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공교육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가진 왜곡된 체제와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기독교 홈스쿨을 한다 해도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이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사실 교회는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넘어서는 기독교적인 교육관을 제시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승의 실패에 몰려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리가 사라진 교육 사회에 싸움을 선포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극단적으로 가는 승자독식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서

한국 공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 차원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물론 '기독교'라는 이름만 걸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전심으로 교육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세상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회가 한국 공교육의 빈 부분을 채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에 제한할 필요는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각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일이다.

다음으로 교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이 없는 교육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교육 내용을 바꾸어가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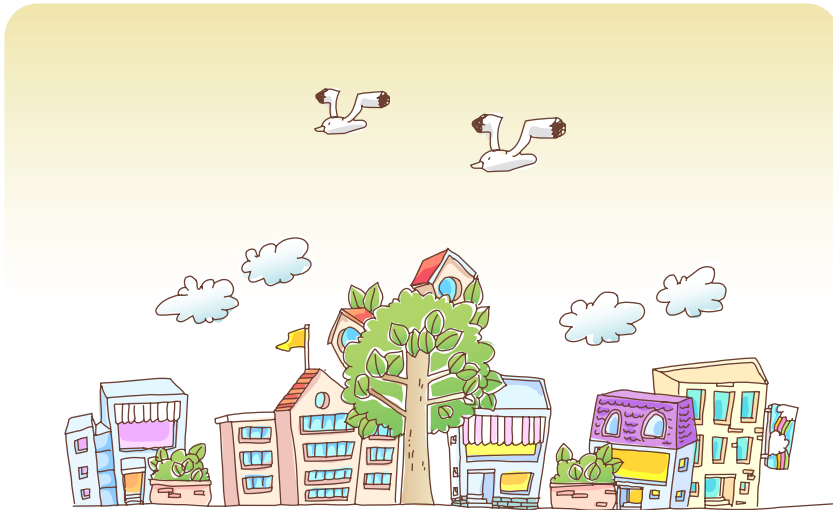


입시 위주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빈 피해자는 가난과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인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 청년들이 지역 학교로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나 교육시민운동을 통한 교육 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역의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신실한 신앙과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진 분으로 모셔오고, 그 교장선생님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사들을 모셔와서 공교육을 바꾸는 모델들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입시 위주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빈 피해자는 가난과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인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한국 공교육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이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회 청년들이 지역 학교로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글로벌 리더나 기독교 인재 양성을 넘어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병오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청운중, 장충여중, 양화중, 문래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다. 현재는 초중고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로 상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생명윤리 특강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2

이상원

연재 순서

I. 세계관과 생명윤리

II.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III. 세계관과 생명의 종결점

유물론, 현대인을 장악한 강력한 이념

현대인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관의 유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념은 유물론(materialism)이다.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실재의 전부이며,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체계다. 유물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물론적 환원주의(materialistic reductionism)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유물론적 환원주의란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의 산물인 윤리, 도덕, 종교, 법, 예술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을 물질들 간의 상관작용에서 발견해낸 원리들을 가지고 해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는 사회의 하부구조로써 종교, 도덕, 법, 예술 등과 같은 사회의 상부구조를 해명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나, 인간의 심리 기제에 나타나는 원리로 도덕과 종교 활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심리주의나, 유전자로부터 발견해낸 원리들로써 도덕과 종교를 설명하고자 했던 유전자 결정론 등이 모두 유물론적 환원주의의 구체화된 형태들이다.

유물론은 필연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는 공리주의

로 나아간다. 초월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치는 물질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초월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초월적 규범 지도가 실종되었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서 복수의 물질적 가치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어떤 가치가 행위자에게 더 많은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따라, 곧 공리주의적 척도에 따라서 가치선택을 하게 된다.

경계선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

이런 양상은 생명윤리 영역에서 지나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명윤리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경계선상의 상황(the borderline situations)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간들의 행동이다. 경계선상의 상황이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외부의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뜻한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듯,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결되는 시점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인간은 신체적으로 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

적으로도 자기 의사를 주체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두 시기에 인간 생명의 존폐여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가치관과 행동이 생명윤리의 윤리적 반성 대상이 된다.

경계선상에 처한 인간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힘겨울 정도의 많은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부담, 희생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유물론

론적 공리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다음과 같다.

a.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얻는 기쁨 보다는 낳아서 키우는 데 따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낙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b. 피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즐겼으나 아이를 잉태하는 데 뒤따르는 어려움을 감당할 마음이 없을 때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여 아이를 제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c. 불임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시험관 아기 갖기를 시도할 수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아기를 얻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배아파괴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d.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의 세포는 모두 줄기세포이며,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를 가



이나 공리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때, 과연 이런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들을 다루고, 생명의 종결점 관련 의문은 다음 호에서 다루겠다.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의 의문들

생명의 시작점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유물

능하게 할지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를 괴롭히는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실용적인 효과를 얻기만 한다면 배아파괴를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은 이같은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시작점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에 동의한다.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희생의 대상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양심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이 물질적 행복을 얻는 대가로 희생시킬 대상이 바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 목적이 물질의 보상이나 난치병 치료든, 아이 얻는 것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희생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한다. 사실상 모두 궤변들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인간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과 같다. 대내외로 드러내 밝힘으로써 대중들을 설득시키고자 안간힘 쓰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논리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a. 종차별주의(specism)는 도덕적 판단능력, 합리적 사유능력, 자기의사표현능력 등과 같은 정상적인 정신활동의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문제는 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각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시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b. 출생시설은 태아가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에야 비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생물학적으로 출생 직후와 직전을 구별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c. 뇌파설은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사실상 뇌의 활동은 뇌파가 감지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뇌파 감지는 뇌의 활동이 그 이전보다 약간 더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 뇌

파감지시점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보아야 할 생물학적인 이유는 없다. d. 원시선설은 수정이 이루어진 후 14일경이 되면 척추선인 원시선이 거무스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시선은 이미 수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성장하는 것으로서 14일경에는 다만 조금 단단해지는 정도뿐이며, 게다가 원시선은 며칠 지나면 사라진다. 따라서 원시선 출현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이론들은 물질적 행복을 얻기 위해 신생아나 태아, 배아를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관행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일 뿐이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시점이 올바르게 설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철저한 불연속점에 있다. 다시 말해 이 시점 전에는 살아 있는 인간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합할까? 바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는 생물학이나 유전학적으로도, 성경이나 교회사적으로도 일치한다. 이른바 수정란설은 기독교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적인 전제다. a. 생물학적으로 한 인간의 신체적 생명이 가능하려면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작용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며 전에는 이 두 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b. 유전학적으로 한 인간의 유전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자 구조는 수정 전에는 천문학적으로 놀랍고 엄청난 변화를 거친다. 유전자변환 및 부계와 모계에서 온 염색체의 840만가지 가능한 조합 등 말이다. 그러나 수정이 이뤄지는 순간 확정되며, 그 후에는 죽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c. 성경에서는 잉태의 시점부터 배속의 아기를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 호칭하고 있다. 잉태는 성교를 가지는 시점을 뜻하며, 이는 수정이 이뤄지는 때보다 더 이른 시점이 된다. 성경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바로 직전부터 살아 있는 인간으로 봄으로써 수정란설을 견고하게 뒷받침한다. d.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적 생물학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문헌,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남아의 경우 잉태 후 40일, 여아의 경우 잉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영혼이 주입되므로 이 시점부터 살아 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루터, 칼빈 등과 같이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잉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후일 정자와 난자가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수정란설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 카톨릭교도 영혼의 시점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판하고 수정란설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

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은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 높은 절대가치이다. 따라서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배아(수정후 8주까지의 아기)와 태아(8주 이후의 아기)를 파괴하는 관행 곧 낙태, 사후피임약 복용, 시험관 아기시술, 배아줄기세포추출 등은 모두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이다. 유물론적인 공리주의 가치가 인간의 목숨의 절대가치를 상해시켜서는 안 된다.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 기독교윤리연구소장이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마녀사냥(1)

나는 방송촬영차 해외촬영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관련 방송을 많이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를 다니다 보면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현장을 발견하곤 한다. 여성할레나 조혼 등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서 야기되는 끔찍한 관습들은 사람들을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한다. 그중에서 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취재한 마녀사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장유진

오늘날 마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사건으로 마녀 사냥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 두 명의 소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다.

외신을 통해 가나 한 인권단에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 어린소녀를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나 신문기사에도 집안이나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평생동안 가뉘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혹시 그냥 흥미위주의 해외토픽은 아닌지 그냥 넘기려다가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하였다.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가나 북쪽 타말리 지역에는 마녀사냥이 몇백년 동안 내려온 마을전통이라 혼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지역 어느 마을인지, 누구를 통해야 그 사실을 취재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취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현지에 가기로 하였다.

가나의 마녀마을을 찾아서

일단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했기에 가나 정부가 지원하는 인권 관련 기관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취재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취재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현지 신문에 언급되었던 '인권과 정의(CHRAJ)'라는 단체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는 마녀로 몰려 어딘가에 갇혀있는 패티언스 아힌(12)과 아비바(13)라는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힌의 경우, 지난 해 12월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 아힌은 학교를 마친 뒤 거리에서 빵을 팔아 할머니를 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아힌이 예전처럼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이 자꾸 사라진다고 교사에게 불평해왔다. 아힌이 사라지기 전에 학교 선생님께서부터 들은 얘기는 놀라웠다. 어떤 남자가 할머니에게 '손녀가 마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아이가 있는 한 마을은 번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더

아프리카에서 마녀란 노약자를 뜻하는 것 같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아프리카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되면 식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마녀란 명목으로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다.

란다. 나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타말리 지역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차로 비포장 도로를 16시간이 나 달려할 만큼 먼 길이었다. 가나에는 한적한 도로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밤새 차를 타고 달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가는 데만 이들이 걸렸다. 문맹률이 높은 시골일수록 마녀사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타말리 지역에서 지난 5년 간 접수된 신고가 4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나는 인권단체 관계자와 함께 2년 전 사라진 아비바(13) 라는 소녀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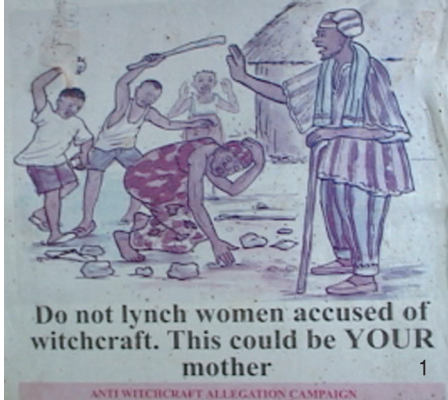
아비바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놀라웠던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어쩔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인권단체 직원인 윌리엄스는 마을 공동체가 마녀를 지목한다고 설명해 줬다. 그 사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질 누군가(마녀)를 정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녀로 인해 집안이나 사업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마녀사냥의 사태는 심각했지만, 일어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였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며 가끔은 어린 여자애들도 대상이 된다. 마녀를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마녀임이 결정되면 공동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맞아서 죽기도 한다. 인권단체에서는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마녀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

며, 마녀임을 합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폭행을 가한 사람은 체포되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교육시키고 있었다.

사라진 마녀 피해자들

아비바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인권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이 마녀라고 내보낸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나는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일명 마녀마을)이 있다는 인권단체의 설명을 듣고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일단 마녀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흑누명을 벗게 돼도 다시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고, 이런 배경으로 생겨난 게 마녀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곳에 오면 이웃들의 폭력이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캠프에 사는 마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혹은 귀신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라져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마녀마을로 온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노약자들이었다. 나이 어린 소녀들도 가끔 있지만 캠프 내에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해서 이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다고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인 이들은 근처 다른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느질을 해주거나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받아 연명한다.



1. 마녀사냥 금지를 알리는 포스터 2. 마녀사냥의 피해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이다.

왜 마녀가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만난 '마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 곳에서의 마녀란 노약자를 뜻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리나라엔 겨울에서 봄 사이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 일명 보릿고개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먹을 게 많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마녀란 명목으로 쫓겨났던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그것도 부모나 어린 자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전에 여성할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주술사는 마녀사냥에서도 그 비중이 크다. 마녀가 누군지 정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마녀가 누군지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가족이나 이웃의 부탁에 의해 마녀를 지정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일단 주술사가 마녀라고 지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마녀에 해당 되는 사람을 추방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아프리카 오지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하다. (다음호에 계속)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해외시사 프로그램 W를 4년간 50여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2011년 기독교영화제 케리그마 부문 대상 수상작

영화 ‘비창’을 되새기다

진원미

동욱, 민철, 순기, 유리, 주빈, 지현, 그리고 원미

작년 가을 이맘 때, 우리들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 만났다. 단순히 미디어가 궁금해서 함께 한 사람도 있었고, 꿈을 향한 한 걸음으로 삼고자 아카데미를 찾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모인 우리들은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그리고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매년 여름 서울기독교영화제에서 단편영화 공모전이 열리니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때 그 한 마디가 우리 영화의 씨앗이었던 것 같다.

꼭 해야 할 이야기

서울기독교영화제 단편경선 케리그마 부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설교 및 교회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5분길이 영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올해의 주제는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였다. 영화‘초대’의 모태가 된 생일파티 이야기, 엄마와 아이가 지하철에서 걸인을 만난 이야기 등 여러 소재가 후보선상에 올랐다. 그런데 소재를 결정하기

로 한 날, 민철오빠가 비장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나,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설교와 교육의 보조영상인 만큼, 영화 안에 해답보다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게 오빠의 요지였다. 그리고 새터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찾아 둘러보던 중, 새터

민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마주쳤다고 얘기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 시대의 ‘강도만난 자.’ 새터민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보자는 말에, 주위 새터민 친구들과 북한 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무엇에 아파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중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야기’였다.





나는 좋은 이웃이었나

우리 팀은 결국 두 작품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전 준비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민철오빠와 순기오빠와 나는 '비창' 팀을 맡았다. 세 사람 사이에서도 감독과 연출, 프로듀서로 역할 배분을 했다. 사실 영화에도 프로듀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시나리오 보강부터 장소·배우 섭외, 예산 활용, 촬영 현장까지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내 마음은 책임감으로 불타올랐다. 사전 준비단계에서 나는 주로 관련 자료 조사에 집중했다. 관련 잡지와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새터민 선배에게 인터뷰와 시나리오 점검을 부탁했다. 그 날 만남에서 나는 격 없이 지내는 사이인데도 쉽게 나눌 수 없었던, 선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었다.

선배의 인생은 놀라웠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는 말에 고향을 떠난 것,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것,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새터민이라 받았던 '냉소적 무관심'과 그로 인해 응어리진 상처를 보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특성 상, 내 주위에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 유독 새터민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대학생할 3년 동안, 그것을 그리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새터민 친구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4학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새터민'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야, 옆에 있는 친구의 아픔에 관심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선배에게 사과했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모르는 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내가 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혹시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염려되었던 시나리오를



보고, 선배는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묻었다.

생명을 다루듯 정성으로 영화를 만들자

주인공이자 유일한 출연자인, 배우 강태욱 씨는 민철오빠의 소개로 섭외했다. 촬영 날 처음 만났을 때, 배우는 이미 새터민 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주간 시나리오를 닦는 내내, 이 분이 참여할지 고민 중이다, 시나리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기도하자는 등등의 소식을 전해들은 터였었는데 이렇게나 이렇게나 극에 몰두해주시는 것에 처음엔 감사하기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부분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감사함 이상의 몽클함을 느껴야만 했다. '액션!' 신호와 함께,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류성철을 정말로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눈물을 보고, 꺾꺾대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성철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내가 뭐라고 있지도 않은 그를 만들어, 멀쩡한 어머니를 빼앗아 저렇게도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에 어느새 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순한 열정 뿐 아니라, 생명을 다루듯 정성으로 제작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의 이야기가 꿈틀꿈틀 다가가, 보는 자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물폭탄이 내리쳤던 7월 마지막 주, 우리는 그렇게 영화와 함께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작품을 제출하던 날, '공모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겐 성공이라며 서로 축하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때 소리 없이 울컥했던 나를 보고서 민철오빠는 우리 팀이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다고 한다.

본선에 진출하고 대상을 받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본선 진출 발표가 나던 날, 말로는 기대 안 한다고 했던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이 되도록 서울기독교영화제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렸다. 그리고 영화 '초대'와 '비창' 두 편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거실을 마구 뛰어다녔다.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꼬마보다도, 아마 한 뼘은 더 기뻐던 것 같다. 나중에 '비창'이 대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상의 영예만큼 떨쩍 거리지 못했던 것은, 본선 진출만으로도 이미 감격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꿈에도 희망을 주시는구나!'하는 감사함이 가장 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방송인을 소원해 왔는데도, 4년 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곳은 신학대학교였다. 기독교교육을 공부하며 나의 꿈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방송국과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 들어간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여기 있어도, 내 반드시 방송인이 되겠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뿐이었다. 내 꿈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 멀었기에, 이제는 '너 정말 방송일 해도 되겠다!'라며 격려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그래 너 실컷 방송해보렴'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 물론 '난 이제 무조건 성공이다!'라는 핑크빛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안에는, '좋은 미디어인이 되겠다'는 꿈이 평생을 걸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 싶다. 이제 그 꿈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노라고, 그동안 많은 도움과 조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과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영화를 되풀이해서 보면 볼수록, 부족한 부분들만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SNS에 영화를 게시하고 필요한 분들께 상영용 파일을 전하고 있다. 케리그마 부문에 공모한 이 영화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설교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watchup10@naver.com). *수상작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원미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단순한 고백을 가지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08학번으로 입학하였다. 3년간 여학생 생활관에 살며 친구들을 만났고, 기독교교육과 학교 방송국 P.B.S.에서 꿈을 찾았다. 졸업 후에는 꿈을 좇아 방송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5-10년 동안 현장에서 미디어인의 소양을 쌓고, 신학대학원에 돌아와 목회를 준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시대를 한 사람 미디어인으로 살면서,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분노할 것에 분노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

SCFF영화제 수상 소감

2011년 서울기독교영화제 케리그마 부문 관객상 수상

공주빈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며

올해 9회째를 맞는 서울기독교영화제의 단편 경선부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제나 소재의 제한이 없는 '코이노니아'와 일정한 주제(성경 본문)에 맞춰 만드는 '케리그마'가 그것이다. 우리가 출품한 부문은 케리그마로, 목회 및 선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것이다. 올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강도만난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본문이다. 주제를 받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교회에 다니거나 다녔던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안팎의 모습을 영상에 담자고 정했다. 영화는 여자 주인공 유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얼마 전에 만난 교회 친구들이 찾아와 다정하게 축하메시지를 건네고,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대화 속에 불이 꺼지고 생일축하 노래와 함께 촛불에 비친 유리의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왜인지 그녀

의 표정은 밝지 않다. 노래가 끝나고, 불이 켜진 방에는 유리 혼자만이 남아 있다. 쓸쓸한 그녀의 모습 뒤로 초대에 오지 못한 친구들의 사연이 흐르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나의 일, 나의 성적, 나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힘겹게 하진 않았는지... 때로는 주인공 유리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따랐지만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행동하기를 주저했던 제사장과 레위사람처럼 말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질책하면서도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을 거 같다. 영상을 보는 이들이 각자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대가 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났던 것은 참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동시에 부족하나마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움, 그러나 소중한 경험들

4분 내외의 영상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부분은 시나리오였다. 어떤 메시지를 영상에 담을 것인지, 누구의 시선, 어떤 장르와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완성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 우왕좌왕 헤매기도 했다. 아이디어나 장면 위주로 이야기를 채워 나가다보니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았다. 몇 번을 갈고엎은 후에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공부할걸,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하나의 성경 본문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던 점은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김남국 목사님(전 동역회 연구원)과 함께 본문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해석하면서 진리가 주는 깨달음과 격려, 위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컷과 앵글,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 촬영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 실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현장에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컷들을 더 많이 찍었지만, 준

비해 든 리스트 덕분에 맥락을 기억하며 (그나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시나리오만큼 함께 소통하며 작업했던 부분은 편집이었다. 우리 작품의 편집을 맡은 권순기 형제는 그만의 독특한 발상과 섬세함을 작품에 녹여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동료들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덧붙여 가며 완성분을 만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편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라면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편집과 협력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첫모임에서부터 영화제까지.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시나리오의 완성도, 영화적 접근, 연기자와의 소통, 제작과정에서의 소소한 사건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자발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또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좋은 친구를 사귀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 모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셨던 분들께 늦게나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수상작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빈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졸업생.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며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로 섬기기도 하였고 한국기독교학생회(NF)에서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에코파티 메아리 자원활동, 이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부 인턴을 거쳐 현재 졸업을 앞두고 전공과 비전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갤러리, 세계관을 담은 그릇

갤러리는 그릇이다. 작품들이 쉬임없이 들고 나는 그릇이다. 빈 그릇과도 같은 갤러리 공간은 전시 작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다. 지난 3월부터 대구 인터불고 갤러리의 전시기획을 도우면서 작품과 작가에 따라 변모하는 갤러리의 모습에 많이 놀라곤 했다. 초봄을 연 '꽃 그림 전'에서는 갤러리가 그렇게 화사할 수 없었고 향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런가 하면 목향이 배어나오는 문인화의 전시가 이어졌고, 때로는 청년작가들의 치열한 실험과 탐색의 열기로 갤러리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오래 오래 기억되는 전시가 있다면 인생과 세상에 대한 작가의 깊은 성찰이 있고 그것을 흥미로운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들이다.  오의석

중년의 삶으로 인간을 말하다

중년 인생들의 애환과 허세, 그 이면의 아픔을 독특한 칼라와 나무, 브론즈, F.R.P.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에 담아낸 우성립의 조각전이 인터불고갤러리 초대로 열린다.

우성립의 조각들은 개그의 한 컷과도 같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매우 심술궂고, 욕심스럽고, 강한 척 해보지만 많이 흔들리며 휘청거리는, 어찌보면 삶의 무게에 눌리며 찌

들린 흔적이 역력하다. 틀림없는 우리시대 중년의 초상들이다. 일면 딱해 보이고 연민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 모습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더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성립이 조각한 인생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실상이며 작품 속 인물들의 무대가 곧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중년의 인생들을 선택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출생과 사망의 인생여정에서 평균적 중



1. 우성림 작, 글썸 그린데, 목조 2. 열번의 용기, 목조 3. 고음불가

간지점에 선 그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욕심과 허세, 힘과 성취의 절정에 있었지만, 이제 하향기에 접어들면서 물러남과 잊혀짐, 소외를 경험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될 운명적 존재들을 작가는 작품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성림의 조각은 그저 웃고 넘길 수 없는 무게를 가지며 여운을 남긴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요구를 그의 조각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각 앞에 서면 '과연 당신의 삶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들을 수 있다. 조각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보다 진지해 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웃음과 함께 각성을, 그리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성림의 조각들이 2011년의 새 봄에 우리 곁을 찾아왔다.

-우성림 조각전 보도자료(4월26일-5월5일, 인터볼고 갤러리) -

불편한 의자(Uncomfortable Chair) -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갤러리에 날아든 한 무더기의 의자들, 더러는 원색과 황금색의 채색으로 일견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자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네 개의 다리 중 한 두 개의 길이가 짧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하면, 받침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철사를 둘러놓은 의자도 있다. 작품의 명제처럼 '불편한 자리' 들이다.

작가 양순열은 전시장으로 끌어 들인 이 의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배열한다. 구석에 짝을 지어 놓는가 하면 식탁 테이블의 중앙에 올려 설치하기도 한다. 작품 '불편한 자리'는 전시장의 중앙에 원형으로 서클을 이루며 배치되어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느낌이 주기도 하다. 그렇다고 편안한가? 아니다. 의자들의 조합에서 불편함은 더욱 배가 되고 증폭된다. 불편한 개인들이 모여서 더욱 불편한 집단을 만들어 가고 있듯이 말이다.



양순열 작, 불편한 자리, 오브제 설치작품, 2011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의자, 의자는 무생물이면서 예술가의 섬’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가 끌어들이는 오브제, 곧 사물들의 이야기는 곧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양순열은 일상의 사물들을 선택하고 변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작가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아버지의 의자, 아들의 군화, 자신의 거울 등이 좋은 예이다. 사물을 통해서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을 환기시키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대한 표명을 담아낸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결국 작가는 인간 실존의 불편한 진실에 접근해 간다.

실낙원 이후 인간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힘써온 것이 인간의 삶이고 역사였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구의 자리도 불편하지 않은 자리는 없다. 그 자리마저도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 후엔 일어

서야만 한다. 양순열의 설치작품 ‘불편한 자리’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를 마주서게 한다.

—‘상상세계의 문설주에 기대다’ 양순열 초대전 (8월 · 1일-13일, 인터볼고 갤러리)에서—

갤러리가 작품을 담은 그릇이라면, 작품은 곧 작가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작품은 곧 작가의 눈이고 입이고 손과 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 속에 작가가 보는 세상, 세상을 향해 하고픈 이야기, 작가의 경험 세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갤러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인격과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 보는 것은 작품이지만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작가를 만나, 그가 본 세상과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지난 기획전의 회상과 함께 앞으로 초대되는 작가와 작품의 전시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오익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MF 지도 교수로도 활동중이다. 개인전 8회(서울, 대구, 부산, 횡트웨이인, 연길),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 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부활의 조형’ 등이 있다.

대대로 이어갈 우리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가 556장)

나는 여섯 살 때 들은 고모님의 찬송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전쟁 통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던 나는 고모님 품에 안겨 '찬송하는 소리 있어 거룩 거룩 하오다' 찬송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잠이 들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하며 흥얼거리며, 칙칙한 피난 살림에 밤새워 제품을 만들면서도 이른 새벽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행진곡처럼 부르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십수년 전, 고모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어릴 적 들었던 이 모든 찬송 가락들이 내게 남겨진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최고의 유산(遺産)임을 알았다. 나는 묘비석(墓碑石)에 내 귀에 쟁쟁 남은 찬송 가사를 새겼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족은 매 추석 때마다 공원묘지에서 이 찬송을 부른다.'

어느 교사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지?" "그럼,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학생들은 요셉과 그의 열두 형제 이름까지 다 대면서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이라는 표정을 짓더라. 교사는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모님의 성함과 친가와 외가 조부모님의 성함을 적으라고 했다. 유대인의 조상을 그토록 줄줄 꿰 찬 그들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기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들을 기억하며 고향을 방문하고 성묘를 하는 추석 한가위 전통은 민족의 명절로서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과도 같다. 한식이나 추석 등 일 년에 한 두 차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듣는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존재와 뿌리에 대한 생각과 효(孝)를 몸으로 배우며 가족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마다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며 그들 나라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대대손손 가르치듯,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신이 살아있는 가풍(家風)이 자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지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찬송을 지은 권기창(1966-) 목사님은 후렴마다 "우리가정"이아말로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라고 기뻐 노래하며 "대대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곡을 붙인 문성모(1954-) 목사 역시 "할렐루야 우리가정"을 곡의 절정인 가장 높은 음역(音域)에 두고 있다. 우리 명절 분위기에 한층 걸맞게 굿거리장단으로 쓰여 악구(樂句)나 악절(樂節) 끝에 '으이' '좋다' '얼시구' 같은 추임새를 간간이 넣어준다면 더욱더 흥을 돋우리라.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한 고별설교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종 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때까지의 일을 낱알이 열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란 말을 남기며 후대에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념석(記念石)을 세웠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

생각하라는 도전을 높이 사면서

이승구



존 파이퍼 저, 전우익 역, IVP, 2011

우리시대의 건전한 목회자들

우리 시대에 성경적으로 가장 건전한 주장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목회자들로 고든-콘웰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D. Min. 출신으로 뉴욕 맨하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성장하며 맨하탄에서 가장 생동력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리더 교회(Redeemer Church, PCA)의 팀 켈러(Timothy James Keller, 1950 -), 그리고 뱀엘신학교에서 6년 동안(1974-1980) 신약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개혁주의적 침례교 목사인 그래서 우리 시대의 스펀전이라고 할만한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John Piper, 1946 -), 그리고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여 세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개혁파적인 강조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1969년부터 캘리포니아 썬 벨리의 그레이스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세 번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1939-)를 들 수 있을 것이다.² 이들이 같은 힘을 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며,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내는 책들은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어

1 Tony Carnes, "New York's New Hope," *Christianity Today* (1 December 2004) <http://www.ctlibrary.com/ct/2004/december/15,32.html>.

2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맥아더는 5번째 조카이기도 한 존 맥아더는 그런 점에서 독특하다. 그는 아주 의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글을 보라: http://www.gty.org/resources/Sermons/90-334_Why-Every-Calvinist-Should-Be-a-Premillennialist-Part-1 따라서 그에게는 세대주의자라는 지칭과 칼빈주의자라는 지칭이 같이 붙어 다닌다. (Cf. http://en.wikipedia.org/wiki/John_F._MacArthur.)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맥아더의 큰 과제이고, 그가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면 우리들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을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굳건한 좋은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편 의미에서 이 분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아간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생각하라

특히 이번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존 파이퍼의 최근 책 『생각하라』³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 책의 조언을 깊이 생각하며 그에 따라야 할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파이퍼가 이 책을 헌정하고 있는 휘튼대학교 1968년 동기생들 두 사람(Mark Noll and Nathan Hatch) 중의 한 사람이고, 이 책의 추천 서문을 쓴 마크 놀(Mark Noll) 교수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잠언 2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주 노골적이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다. 파이퍼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학생 또는 학자’, 즉 ‘깊이 생각하며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살피는 모든 사람’이라고 본다(15).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생각을 독려하는 것이다’(20).

이런 요청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으로 책을 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믿으며 산다는 현상 때문이다. 마크 놀이 표현한대로 오늘날에는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느낌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라고 부추키는 면이 적지 않다”(11). 우리들 가운데 반지성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기니스가 표현한 바와 같이 많은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지 않는다.”⁴ 또한 생각을 믿음과 대조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빠진 생각, 성령이 빠진 생각, 순종이 빠진 생각, 사랑이 빠진 생각은 교만해져 무너지고 만다(고전 8:1)”⁽²⁹⁾.

이런 잘못된 성향에 대하여서 파이퍼는 성경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바 (1) 최대한 분명하게 생각하되, (2)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한다. 파이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진지한 사고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13).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생각하는 기능을 그 본래적 의미로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16, 18). 다시 말해서, “하나님

3 John Piper, *Think: The Life of the Mind and the Love of Go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10), 전의우 옮김,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 (서울: MP, 2011). 좋은 책을 빨리 번역해준 출판사와 역자에게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하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번역본에 근거하여 본문의 () 안에 면수만을 밝히는 식으로 하기로 한다.

4 Os Guinness, *Fit Bodies Fat Minds: Why Evangelicals Don't Think and What to do about it* (Grand Rapids: Baker, 1994).

5 파이퍼는 한 곳에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을 한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낳는다... 이웃을 향한 생각과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사랑하기와 똑같지는 않다. 이웃을 향한 생각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넘침 혹은 열매이다” (100).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넘쳐 난다” (181). 이와 비슷한 논의로 Seung-Goo Lee, *Kierkegaard on Becoming and Being a Christian* (Zoetermeer: Meinema, 2006), 2장을 보라.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지성을 단단히 활용해야 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기초는 깊고 튼튼하다”는 것이다(19). “하나님을 알려고 힘쓸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의 불은 꺼지고 만다(20, 194)”. 그러나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다. 생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체로서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29)”.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님의 강한 손아래서 하는 생각, 기도에 젖은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 성경에 매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할 더 많은 이유를 찾는 생각, 사랑으로 섬기는 생각”이다(29). 또는 “겸손하고, 성실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꼼꼼한 생각”이다(142, 181). 이런 파이퍼의 의도를 이미 1911년에 워필드가 잘 표현한 바 있다: “열 시간 공부하기 보다는 십분 기도 하면 하나님을 더 참되게, 더 깊게, 더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답이 제격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열 시간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⁶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학교가 세워졌다” 또한 “한 지역의 기독교 역사가 길어질수록 교육 기관은 더 진지하고 더 철저해졌다(204)”.

그러므로 제대로 된 생각, 성령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103)”,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려는 목적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자신의

사고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103)”.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파이퍼를 그렇게 이끈 것과 같이 “번번이 예배에로 이끈다(28)”, 또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묵상할 때에 불이 붙는 것이다(시편 39:3)(29)”.⁷

더 나아가 13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한다(195). 그에 의하면 모든 분야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21, 197, 205)”. 그러므로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는 영적 감정이 그리스도인의 학문에 스밀 때, 기독교 학문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다”고 파이퍼는 말한다(198).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맞보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능력이 없으며 우리는 기독교 학문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199). 따라서 기독교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199)”. 그 역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연구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파이퍼는 강하게 말한다(198).

또한 파이퍼는 그런 바른 생각은 전혀 지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식으로 나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이다(20, 181).⁸ “은혜가 역사하면 생각은 겸손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20)”. 또한 파이퍼는 부지런히 연구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

6 Benjamin B. Warfield, “The Religious Life of Theological Students,” in *The Princeton Theology*, ed. Mark Noll (Grand Rapids: Baker, 1983), 263.

7 우리 말 개역에서는 “화가 발하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퍼 같은 이해는 청교도 Thomas Goodwin의 논의 속에 나타나고 있다: “생각과 감정은 상호 원인(sibi mutuo causae)이 된다.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시 39:3) 그러므로 생각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타오른다. 감정이 타오르면 생각이 끓는다. 따라서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 온 사람들, 새롭고 강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안다”(“The Vanity of Thoughts,” *The Works of Thomas Goodwin*, 12 vols. (Eureka, Ca: Tanski Publications), 3: 526–27, Piper, 103에서 재인용).

8 ‘반면에 경솔한 신비주의자는 오만하다(20)’는 것도 파이퍼는 잘 대조하면서 지적한다.

이퍼는 “생각하라, 그러나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감동하지는 말라”는 흥미로운 권면을 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일부 교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극복하게 하는 책이며, 또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에 유행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상대주의를 피하도록 하는 책이다. 파이퍼는 ‘상대주의가 지적으로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 논의한다(19, 109-34),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작성에 직접적 자극을 준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가 지적한 ‘과도한 지성주의(over-intellectualism)’⁹를 벗어나도록 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 책이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크 놀이 그리 생각하듯이 “세밀한 연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필수 과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 대신 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11). 파이퍼 자신도 이 책은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주제로 쓴 여러 책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지 않으나 성경의 해석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 전인 1963년에 해리 블레마이어(Harry Blamires)가 “세속적 사유와 대조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정치생활, 문화생활에 뚜렷하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며 제대로 역할을 하는 생

각한 기독교적 사유가 없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한¹⁰ 후에 1994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지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여 왔다.¹¹ 파이퍼의 이 책은 이런 논의에 성경적 토대를 더 분명히 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이퍼가 생각하는 기능, 이성을 믿음과 대조시키지 않는 이런 성경적이며 기독교적인 입장을 더 분명히 드러내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우리의 지성이 ‘죄의 영향으로 왜곡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18, 79) 이상으로 더 강하게 논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더 일관성 있게 논의하였더라면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에 성경적 토대를 분명히 한 최고의 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모든 잘 못된 생각들인 성경 비평과 천주교나 (바울에 대한) 새관점적 칭의 이해,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만인구원론과 영혼멸절설, 낙태 옹호와 페미니즘, 이혼과 동성애, 인종차별과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소비 주의와 물질 중심주의, 심지어 알미니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몇몇 격전지라고 밝히면서(236) 이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파이퍼의 생각하기를¹²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9 이는 Nicholas Wolterstorff, “Thinking with Your Hands,” *Books and Culture* (March/April 2009), 30에서 잘 비판되고 있다.

10 Harry Blamires, *The Christian Mind: How Should a Christian Think?* (London: SPCK, 1963), 6.

11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s, 1994); Guinness, *Fit Bodies Fat Minds* (1994); J. P. Morelan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The Role of Reason in the Life of the Soul*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7); James W. Sire, *Habits of the Mind: Intellectual Life as a Christian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2000); Clifford Williams, *The Life of the Mind: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Gene Edwards Veith, Jr., *Loving God With All Your Mind: Thinking as a Christian in the Postmodern World*, revised edition (Wheaton, IL: Crossway, 2003); Mark A. Noll,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 (Grand Rapids: Eerdmans, 2011).

12 이에 대해서 Piper, 236-39를 찬찬히 읽어 보라.



Samsung GALAXY S II

4.3 SUPER AMOLED PLUS

MOTION UI

DUAL CORE

WORLDVIEW NEWS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졸업생 서울기독교영화제 대상 수상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 시상식이 10월 4일 서울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케리그마 부문에 출품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졸업생 성민철(독립영화인), 공주빈(성균관대)이 대상과 관객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영상제작에 참여(진원미, 권순기, 김동욱, 이지현, 최유리)하고 후원했던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디어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기를 기대합니다.



성민철 공주빈 진원미 권순기 김동욱 이지현 최유리



수상직후 소감을 발표하는 수상자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MT

지난 10월 14~15일 1박2일 동안 경기도 여주 패션그룹형지 별장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MT가 있었습니다. 강진구 교수(고신대)의 세계관 강의와 유지은, 장유진 PD의 영상기획 특강 및 제작 실습을 통하여 세계관의 기초와 영상제작 전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히며 미디어를 향한 비전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디어 사역자들로 훈련받을 예정입니다. 장소를 후원해 주신 김원수 후원위원장(패션그룹 형지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CTC 11월 행사안내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리포머 과정

내용 : 기독교세계관, 영성관, 문화관, 소명관/ 어린이세계관학교(12주 과정)

*매뉴얼 제공

일시 : 11월 1일(화) 개강, 7:30-10:00, 16주 과정

장소 : CTC 크리스천싱킹센터(일산 대화동 2272-5번지, 장춘초 후문)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포머 과정

내용 : 코칭의 기술, 생각코칭, 크리스천 생각코칭

일시 : 11월 14일, 21일(월), 10:00-16:30, 2일 과정

장소 : CTC 크리스천싱킹센터(일산 대화동 2272-5번지, 장춘초 후문)

*지도자 과정의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싱킹센터 네이버 카페를 참조

*문의처 : 안성희 팀장(010-2792-5691)

11월 외부 강의

청소년생각캠프(11월 12-13일, 광주새순교회)

ACTS 신앙과 윤리 특강(11월10, 17일)

기독교세계관 특강(11월 20, 27일, 높은뜻송의교회)

CUP 신간 「일상기도」



CUP에서 「일상기도」(원제: A Praying Life)를 출간하였습니다.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CUP)의 저자이기도 한 폴 밀러의 기도 세미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자 자신의 삶의 모습과 기도 생활의 방법들을 섬세하면서도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한 번 잡으면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기도에 대한 탄탄한 구조 속에 저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책의 전반을 흐르고 있어 재미있으며, 기도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효과적인 기도 일기, 기도 카드 작성 등의 실례들이 담겨 있어 유익합니다.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 책에 보내는 찬사는 뜨겁고도 신선하며, 아마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은 대부분 별 다섯 개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